

술술주간 주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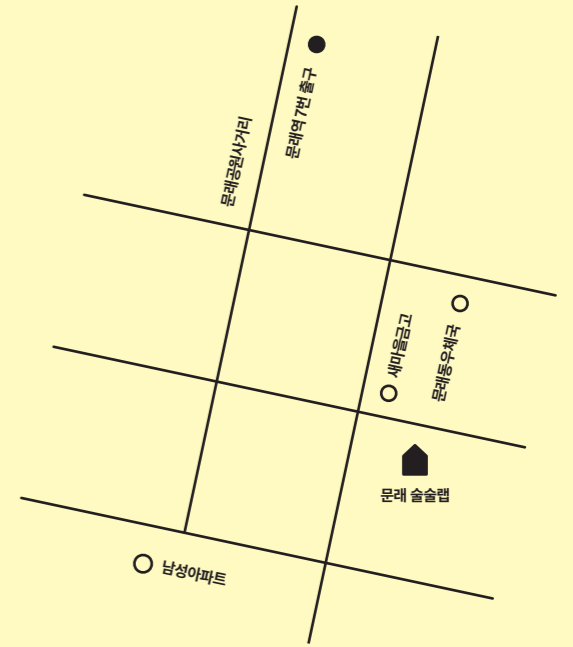
	11.8(금)	11.9(토)	11.15(금)	11.16(토)	11.17(일)
오픈행사 오픈식 + 술술파티 (DJ파티, 미디어파사드 - 육일봉)	17시 30분 <1층>				
프로그램 '언덕 위의 아루스' VR 페인팅 체험	19시 <1층>				
'언덕 위의 아루스' 만들기 체험 워크숍		14시 <1층>			
'작가와와 머물' 프로그램			15일 18시 ~ 16일 6시 <4층 404호>		
'술술 + 실천 + 비평' 오픈토크				16시 <1층>	
'문래의 언어 (떠오는 사람들)' 기획자 도슨트 프로그램				14시 <5층>	
WP-DNA 스테디모임 현장실습 (White Pyramid-Digital Noise Art)				18시 <1층>	
'401호, 풍경' 오픈 스튜디오				16일 ~ 17일 <4층 401호>	
'언미리티드 스페이스 문래' 오픈 스튜디오				16일 ~ 17일 <1층, 3층>	
퍼포먼스 '몽고반점' 언플러그드 공연				21시 <1층>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가제)			15일 ~ 17일 <지하, 2층 201-203호>		

▲ 1층은 누구나 편히 머물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시

	11.8(금) - 11.17(일)
문래의 언어 (떠오는 사람들) - 글자가온다 (신동혁)	<5층 501-502호>
자라나는 초록, 거미줄 - 오수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작업실, 풍경 - 양양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어제 봤던 그 사람은 이제 (가제) - 최윤묵	<4층 402호, 벽면>
에네르기파 - 장자인	<4층 403호, 벽면, 천장>
머물 - 정소형, 하성민	<4층 404호> *13일 오픈
배알로 - 고결	<3-4층 계단, 천장>
'좁으로 당긴 마을 풍경에 도달할 때 까지' 전시 프로젝트 - 그룹전시	<1층, 3층, 기타공간> *9일 오픈
문래동 원정기 참여작가전 : 고독한 밤, 찾아온 당신에게 - 그룹전시	<2층 206호, 복도, 오른쪽 벽면>
'언덕 위의 아루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장형순	<1층, 2층 204호>
문래동 이동장치 연구소 (이동장치모델 제작 및 기록 영상 전시) - 신해철	<1층> *15일 오픈

문래 술술랩 찾아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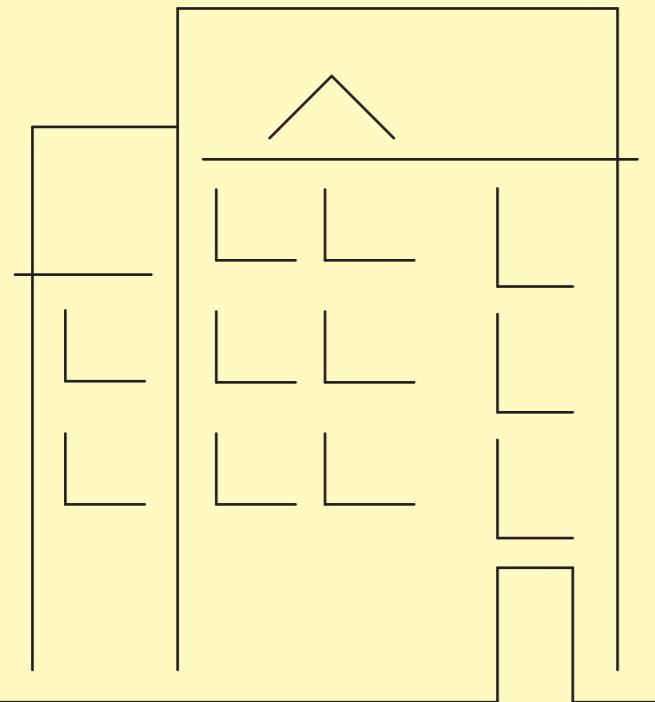


영등포구 문래2가 20-2

지하철 2호선 문래역 6,7번 출구에서 도보 8분
마을버스 영등포 12번 문래우체국 문래예술공간 하차

▲ 대중교통 및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2019년의 실험



불러오기, 2020년의 상상

Q.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일 × 놀이 × 학습

예술 × 기술 × 마을

예술인 × 기술인 × 주민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일과 놀이, 학습을 통합하여
도시와 마을이 처한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예술인 · 기술인 ·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리빙랩?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며 실행하는 '생활 속 실험실'을 뜻합니다.

Q.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영등포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영등포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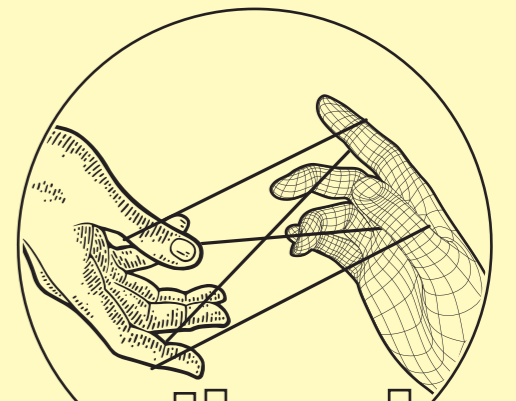
지역의 문화적 재생과 활력을 위해
공공 공간에서 지역민이 소통하며 참여하는
창의적인 문화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장소로서
지역가치를 형성하고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Q. 문래 술술랩?

예술인 · 기술인 ·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력공간을 꿈꾸며
2020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ydp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영등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기 술술

@문래 술술랩

문의 02-2629-2233

문래의 언어 (떠오는 사람들) / 글자가온다 (신동혁)

참여 / 박천욱, 손지훈, 안혁

문래의 언어(떠오는 사람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물(문래동 2가 20-2)의 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들은 점차 문래동 2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물이라는 작은 공간은 문래동 2가라는 지역의 작은 서사가 되었습니다. 작가들은 기획자의 이야기가 전하는 감각을 자신의 작품으로 연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자의 이야기는 변주되거나 사라질 수도,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문래동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문래동을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우리도 어딘가에서 떠나거나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문래의 언어를 시작합니다.

▲ 5층 501-502호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

BLANK LAB

/ 김도영

Nomadic Residency<Unlimited Space 문래>오픈 스튜디오

참여 / 김윤아, 서효은, 정승혜, 예술인 연합 AAA(김도영, 송성진)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문래> 프로젝트는 유목형 창작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적 재생과 동시에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작가들과 함께 연대-공유하는,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과정과 공간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창작거점 프로젝트이다. 이번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문래>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시각예술가들이 입주하여 레지던시 공간으로서의 실험과 창작 활동, 작업적 실험,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3층 303호(김도영, 송성진), 304호(정승혜), 기타공간(김윤아, 서효은) *16일-17일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 양철모

자라나는 초록, 거미줄

참여 / 오수

'자라나는 초록'과 '거미줄'은 별이 들지 않았던 과거 고시원 생활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둡고 습도 높은 환경 혹은 먼지 가득한 구석자리에 서식하는 자연의 형상이 401호 한켠에 만들어질 것이다. 개인과 환경의 관계. 그로부터 파생되는 공간에 서서히 점유해 나가는 방식의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제작 과정을 기록한 뒤 결과물과 함께 제시한다.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 5층 501-502호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작가에게 ‘작업실’은 단순하게는 ‘작업하는 공간’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동굴’이기도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 혹은 ‘풍경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롯이 놓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지요. 여기, 창이 큰 방이 있습니다. 책상을 하나 두고 그 앞에 가만히 앉으면 어떤 이야기가 찾아올까요? 이 방을 살다가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겠고, 문래동의 일상을 탐구할 수도 있으며, 그저 완성하지 못한 나의 작업을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실’이라는 공간 안에 놓인 작가의 ‘풍경’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보려 합니다. 작품으로 발전한다면 좋은 일이고, 작품이 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그 흔하디 흔한 ‘작업실 풍경’이 될 것입니다.

▲ 1층, 3층, 기타공간 *9일-17일

작업실, 풍경

참여 / 양양

지금까지 문정동 작업실에서 그렸던 그림을 벽면에 설치하고 그림 앞에 새로 그린 그림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추가한다. 50점 가량의 드로잉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된다. 설치된 그림의 위치가 바뀌거나 새로운 그림을 추가 혹은 교체하면서 작품의 제목도 바뀐다. 작품의 제목은 그날 읽었던 책에서 발췌하거나 친구와 나눴던 대화 등에서 그림과 어울리는 제목을 붙인다. 안 바꿀 수도 있다.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 4층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작가에게 ‘작업실’은 단순하게는 ‘작업하는 공간’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동굴’이기도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 혹은 ‘풍경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롯이 놓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지요. 여기, 창이 큰 방이 있습니다. 책상을 하나 두고 그 앞에 가만히 앉으면 어떤 이야기가 찾아올까요? 이 방을 살다가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겠고, 문래동의 일상을 탐구할 수도 있으며, 그저 완성하지 못한 나의 작업을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실’이라는 공간 안에 놓인 작가의 ‘풍경’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보려 합니다. 작품으로 발전한다면 좋은 일이고, 작품이 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그 흔하디 흔한 ‘작업실 풍경’이 될 것입니다.

▲ 1층, 기타공간 *16일 18시

어제 봤던 그 사람은 이제 (가제)

참여 / 최윤목

지금까지 문정동 작업실에서 그렸던 그림을 벽면에 설치하고 그림 앞에 새로 그린 그림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추가한다. 50점 가량의 드로잉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된다. 설치된 그림의 위치가 바뀌거나 새로운 그림을 추가 혹은 교체하면서 작품의 제목도 바뀐다. 작품의 제목은 그날 읽었던 책에서 발췌하거나 친구와 나눴던 대화 등에서 그림과 어울리는 제목을 붙인다. 안 바꿀 수도 있다.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4층 402호, 벽면

▲ 1층 *16일 21시

▲ 4층 402호, 벽면

에네르기파

참여 / 장자인

‘에네르기파’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장풍 기술을 사용할 때, 내는 주문 같은 소리이다. 극적인 순간에 장풍을 쓰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장시간의 노동 끝에 만나게 되는 극한의 순간, 혹은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찰나의 장면을 포착하여 그림으로 풀어내보고자 한다.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4층 403호 벽면, 천장

▲ 2층 206호, 복도 오른쪽 벽면

▲ 2층 206호, 복도 오른쪽 벽면

▲ 2층 206호, 복도 오른쪽 벽면

머물

참여 / 정소형, 하성민

남해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정소형x하성민은 여기저기서 얽혀사는 게 일상이다. 이번에는 ‘술슬랩’으로 변신할 예정인 ‘이 공간’에서 머물게 된다. 떠돌아 사는 모습 자체로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되고 완성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정소형과 글을 쓰는 하성민의 작업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오픈스튜디오 기간에는 정소형의 크고 작은 그림과 함께 하성민의 희곡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정소형과 하성민의 모습을 관찰해왔던 관찰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작업은 모두 ‘이 곳에 머무는 이유’가 된다.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4층 404호 *13일-17일

▲ 지하, 2층 201-203호 *15일-17일

▲ 지하, 2층 201-203호 *15일-17일

▲ 지하, 2층 201-203호 *15일-17일

배알로

참여 / 고결

제주에서 상경한 지 2년이 되어가고 내게도 점점 대도시 리듬이 생긴다. 도시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문이 필요하다. 마치 해녀들이 큰 돌고래를 만나도 “배알로, 배알로”하며 살아남을 수 있듯이.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3-4층 계단, 천장

▲ 1층 식당 *15일

▲ 1층 식당 *15일

▲ 1층 식당 *15일

술술 + 실천 + 비평

참여 / 오정은

<술술+실천+비평>은 술술센터의 장소적 맥락과 예술가의 작업 과정이 동일한 선상에서 상호 관계하며 변화하는 추이를 관찰하고 의미를 살핀다. 실천비평의 원리를 따르면서 ‘술술’을 둘러싸고 실재하는 현상을 텍스트로 추적한다.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 1층 *16일 16시 오픈토크

